

How to Succeed in Carrying Out the First Trial of the Clinical Skills Examination in the Korean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Sun Huh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의사국가시험에서 처음 시도하는 임상실기시험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룰까?

한림대학교 의학교육연구소

허 선

1952년 제1회 의사국가시험 이후 2009년 제73회 의사국가 시험까지 57년 동안 시험 문항의 유형 및 수준, 주관 기관, 과 목 및 문항 수는 변화가 있었지만 지필고사(paper and pencil test)로 시행하였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다. 그렇지만 임상 실무 능력을 강조하는 최근의 국제 의학 교육의 추세 및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2010년 제74회 의사국가시험 에서부터 임상실기시험(Clinical Skills Examination)을 도입하여 새로운 국가시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미 Medical Council of Canada에서 1993년,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STEP II에서 2004년 임상실기시험 을 도입하였다[1,2].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지만 국제 추세에 발 맞추어가는 것은 다행이다.

임상실기시험은 2009년 9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두 달 반에 걸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마련한 12개의 실 기시험실에서 치를 예정이다. 표준화환자 및 모의환자 시험

이 6문항, 모형 등을 이용한 실기시험이 역시 6문항으로 한 수험생이 모두 12문항을 치루며, 한 사람당 걸리는 소요 시 간은 2시간 12분이다. 이 12문항은 사전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일반화가능도이론으로 분석할 때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는 문항 수이다. 또한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한국의과 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는 수험생이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실기시험 각 문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 책자를 출판 하였다.

그동안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에서는 임 상실기시험에 대하여 많은 주제를 다루어 왔다. 크게 임상수 행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및 객관 구조화실기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으로 나누어 전자는 주로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s)를 활용하고 후자는 개개 실기를 다룬다. 이번 호에 다양한 분야의 좋은 내용 논문이 많지만, 임상실기시험

Received: August 14, 2009 • Accepted: August 17, 2009

Corresponding Author: Sun Huh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Hallym University, 1 Okcheon-dong, Chuncheon 200-702, Korea
TEL) 033-248-2652, FAX) 033-241-1672, Email: shuh@hallym.ac.kr

Korean J Med Educ 2009 Sep; 21(3): 211-213.
doi: 10.3946/kjme.2009.21.3.211.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을 주제로 세 편이 실렸다. ‘일개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수행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업 성적과 자기효능감, 불안감, 준비도와 같은 특성이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요인이 임상수행능력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3]. 임상수행능력은 자기효능감, 준비도와 상관이 있으나 불안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 기초의학성적, 필기시험점수, 실습점수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경로모형에서 불안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34 로 나타났다. 비록 한 대학에서의 결과이고 표본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수험생이 임상수행평가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낮추기 위하여 대학은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임상수행평가에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시험이 대개 불안도를 높이기 마련이지만 자신의 능력이 불안도 때문에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측정 도구로서 신뢰도를 잃기 때문이다. 필기시험이 임상수행능력과는 별도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결과이므로 필기시험이 더욱 더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이 높은 평가 도구가 되려면 internet-based testing 또는 computer-based testing으로 조금 더 임상 현장에 가까운 상황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경로분석을 도입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어 임상수행평가에 대한 대학에서 접근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객관구조화진료시험에서 평가자 평가와 수험자의 자기평가 간의 차이’에서는 수험생의 자기 평가와 평가자에 의한 성취도 평가 사이 상관이 낮았으나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인 수험생은 자기평가와 평가자에 의한 평가 사이 차이가 줄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4]. 대개 상위 성적 학생은 자기가 평가 받는 것보다 잘 못한다고 여기고 하위 성적 학생은 그 반대인 것은 상위일 경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과 못한 것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런 결과는 앞으로 객관구조화진료시험에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에 대한 되먹이기에 차이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일선 현장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진료수행 시험에서 교수와 표준화 환자의 채점 정확도’는 의대 교수를 채점자로 동원하는 것보다 표준화환자가 채점자 역할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내용이다[5]. 이 연구에서 채점점수의 정확도를 판정하는 기준을 의대 교수가 아니고 표준화환자가 작성하여서 이에 따른 비뮴(bias)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2009년 9월부터 시행하는 첫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가운데 임상수행평가(표준화환자 시험) 채점에 표준화 환자가 직접 참여한다. 의사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점에서 채점자 선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내용이다.

올 9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임상실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물론 필요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도 컨소시엄을 통하여 또는 개개 대학에서 임상실기시험을 치루고 평가하고 되먹이기로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에는 이번 호를 비롯하여 과거에 나온 다양한 임상실기시험에 대한 학술 논문이 있으므로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여 학생 진료 능력 향상에 적용할 것인지 강구하여야 한다. 2008년도부터는 전문의고시에서도 일부 과목에서 ‘임상실기시험’을 치루고 있어 이와 같은 학업 성취평가는 고위험시험(high stakes testing)에도 점점 더 활발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대학 단위의 연구에서 나아가 Cohort 연구, 다기관연구나 무작위 통제연구(randomized control study)와 같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투고하여 의학교육자, 의과대학생 및 전공의가 도움을 받도록 많은 연구자 여러분께서 애써 주기를 바란다.

REFERENCES

1. Reznick RK, Blackmore D, Dauphinée WD, Rothman AI, Smee S. Large-scale high-stakes testing with an OSCE: report from the Medical Council of Canada. *Acad Med* 1996; 71(1 Suppl): S19-S21.
2. Papadakis MA. The Step 2 clinical-skills examination. *N Engl J Med* 2004; 350: 1703-1705.
3. Park KH, Chung WJ, Hong D, Lee WK, Shin EK. Relationships between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of medical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Korean J Med*

히 선: 의사국가시험에서 처음 시도하는 임상실기시험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룰까?

Educ 2009; 21: 269-277.

4. Han MH, Park SG. Difference between scores assessed by examiner and examinee in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Korean J Med Educ 2009; 21: 279- 285.

5. Park J, Ko J, Kim S, Yoo H. Faculty observers' and standardized patients' accuracy in recording examinees' behaviors using checklists in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Korean J Med Educ 2009; 21: 287-297.